

도성훈 인천교육감 “2025년까지 일반고 역량 강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대입 제도 변화나 고교 체제 개편 등 변화에 대비해 일반고등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또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정책이 고교 진학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불공정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

산·학·관 협의체를 만들어 실업계 고교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특성화고 혁신을 지원하겠다.

❶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인권조례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다. 추진 로드맵이 궁금하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다만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교육 가족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를 검토 중이다. 조례 가안이 마련되면 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교육 가족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❷ 2020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토대로 ‘실천하는 민주 시민,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역점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혁신지구 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복합문화 교육 시설도 더 만들겠다. 지금까지 지속해서 펼쳐온 무상교육은 똑 같이 이어진다.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까지 100% 지원할 계획이다.

❸ 교육 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천 교육이 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오로지 우리 아이들만 보고 가겠다. 인천 교육이 가는 길에 주인공이자 동반자가 돼 주시길 바란다. 더 많이 듣고 더 자주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

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❶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인천에서도 일부 학교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이 정책이 고교 진학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불공정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괄 전환되는 2025년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고교학점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❷ 직업교육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인천형 직업교육의 구체적인 의미와 정책 추진 방향은.

인천형 직업교육은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교육을 받고 삶의 터전을 잡는 것’을 뜻한다. 인천 지역의 전략 산업과 학교를 잘 연계해 현장 중심형 직업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

